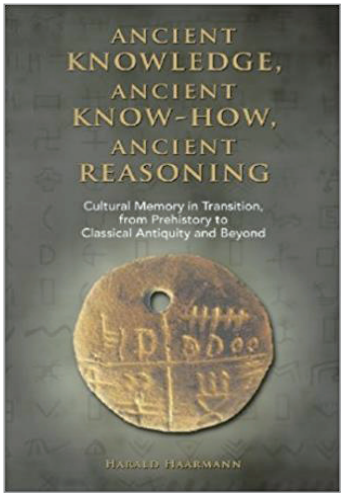

제목	Ancient knowledge, Ancient know-how, Ancient reasoning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Cambria Press
발행일	2013. 12. 26.
저자	Harald Haarmann
출판국가	미국
페이지수	472
ISBN 또는 ISSN	978-1604978520

내용 요약

유명한 인류학자 하르만(H. Haarmann)이 쓴 이 책은 신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는 폭넓은 시간적 범위를 아우르고 있는데, 저자는 그 기간 동안의 지식 습득 방식과 지식 형태의 의미를 조망한다. 영적인 지식은 신석기 시대의 여성 입상에 담긴 신화와 종교에서 길어올릴 수 있고 브란쿠지(C. Brancusi)와 무어(H. Moore)와 같은 현대 미술가들의 원시미술 작품에서 다시 부활한다.

이러한 맥락에서 하르만의 연구는 고고학, DNA 연구, 신화, 인류학, 고전학 고대 언어학, 언어학 등을 기반으로 하고 각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. 그 결과 상대적으로 새롭고 매우 중요한 학문 분야의 개척이 가능해지고, 고도로 발달한 이론과 지식의 습득 또한 가능해지며, 이에 필요한 통찰력도 생긴다.

이 책에서는 유라시아의 중요한 종교적 신념들과 신화적 모티프, 글쓰기 체제, 종교적 표현, 그리고 남동부 유럽 중심의 신석기 문화 관련 신화가 소개되는데, 학제 간 연구 결과물인 이 책에서 다룬 모든 주제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. 고대의 지식과 고대의 노하우, 고대의 추론은 고고학, 신화학, 인류학, 고전 연구, 고대 언어학 및 언어학 등의 영역에서 발견된다.